

# 삶의 참 목적



多夕사상연구소장

박영호

이 세상에 목숨을 얻어 나온 사람은 일찍 가든 늦게 가든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 있다가 없어지고 나서는 죽어야 하는 상대적인 존재가 겪어야 하는 생멸(生滅)의 법칙이 있기 때문이다. 죽기가 싫어서 이 법칙에서 벗어나고자 한 사람은 길가메슈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이 있었으나 모두 헛일로 돌아갔다. 또 죽었다고 하기가 싫어서 이 법칙에 예외를 두고자 한 사람은 아타나슈우스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이 있었으나 거짓임이 분명해졌다. 사람으로서 몸이 죽지 않는 초인(超人)은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다. 사람의 생존 가능 한계 연령이 125세라지만 50억 인류에서 몇 사람이나 그만큼 살 수 있을까? 현대의 의학자들이 인간의 노화(老化)를 늦추어 보고자 연구를 거듭하고 있으나 아직도 뽀족한 수를 찾지 못하였다. 기껏해서 적게 먹는 것이 좋다느니, 꾸준한 운동이 좋다느니, 신선한 채소가 좋다느니, 송과호르몬을 보충하는 것이 좋다느니 하고 있다. 그래야 한 10년 더 살 수 있다고 한다. 사람이 현재의 수명을 한 10배 늘려서 천년을 산다고 하자. 과거로도 끝이 없고 미래로도 끝이 없는 무한 우주에 천년이란 세월은 단 1초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였는가 보다.

지금도 북한의 김일성은 장수연구소를 여러 곳에 차려놓고 인생의 짧은 목숨을 늘리고자 안간힘을 쓴다는데 참사람은 그런 행위를 유지하게 본다.

(삼)

지금 이 땅에서는 재림하는 예수의 손에 공중에 들리어 올라간 다음에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워 영광과 환락 속에 살기를 바라고 찌뜨음악에 맞추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광란을 벌리고 있다. 참 사람은 이를 가엾게 본다.

「사람은 사는 동안에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있다. 신선(神仙)이 되어 영생불사하기를 바라는가 하면 예수 믿으면 예수가 내려와서 죽지 않고 살려서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간다는 것을 바라고 있다. 살 욕심 때문에 이런 것을 믿는다. 이 땅에서 몸 쓰고 영생한다. 신선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불교 도교 할 것 없이 그 종교를 멸망시키는 일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꾸 이것을 구하니 인간이란 짐승이 어찌 된지 모르겠다.(다석 류영모어록)」

사람은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난 것도 아니고 떠나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지엄(至嚴)한 뜻이 있다. 이것이 명(命)이다. 목숨(命)은 곧 일름(命)이다. 그리 하여 생명(生命), 성명(性命), 운명(運命)이라 꼭 명(命)을 붙인다. 이 지엄한 뜻의 명(命)을 공자(孔子)는 하늘이 내리는 명이라 하여 천명(天命)이라 하였다. 이 천명을 흉내내어 사람에게 생사여탈의 명을 내리기를 좋아하는 소위 독재자들이 때 없이 곳곳에 나타났다. 그러나 그 독재들도 지엄한 천명에는 어쩔 수 없이 송장이 되었다. 그래서 인명(人名)은 재천(在天)이라 한다. 인명은 재천인데 사람이(독재자)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것을 노자(老子)는 말하기를 「죽임 말은 이(天)를 대신해(사람을) 죽이면 이는 큰 목수를 대신하여(나무를) 깎는 것과 같다. 목수를 대신해 나무를 깎으면 손 안 다치는 일이 드물다(노자 74장)」고 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월권이라 월권을 저지르는 이는 본인이 먼저 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아버이가 나를 낳고 기른 것은 사실이나 내가 이 세상에 오고 가는데 아버이는 아무런 실권이

없다. 실권이 사람에게 있다면 자식을 못 얻어 상(실)하는 부부가 없을 것이며 자식을 먼저 보내고 애통하는 양친(兩親)이 없을 것이다.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인위적인 낙태를 반대한다는 정강 정책을 채택하였다. 키울 생각도 없는 아기를 낳기는 무엇 때문에 낳는단 말인가. 인간의 치부를 들어내는 망신스런 얘기를 정강정책으로 내 거는 것이 사람들의 도덕심을 자랑하는 것인가? 사람의 비도덕을 고발하는 것인가? 이러나 저러나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큰 소리로 떠들 일이 못되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야말로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짐승들도 그러한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는다. 이 모두가 생명의 실권이 없어서이다.

필요할 때 자식을 마음대로 낳을 능력도 없고 필요하지 않을 때 안 낳을 능력도 없다. 이렇게 실권이라고는 없는 아버이를 내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하다는 것은 단견(短見)이요 착각(錯覺)이다. 이는 전등의 스위치를 발전소로 아는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다. (Buddha)

누구보다 생각이 깊었던 예수와 석가는 이 이치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땅에 있는 아버지(어머니)는 참 아버지(어머니)가 아니라고 하였다. 석가는 아버지 정반왕에게 자기는 샤카(석가)족의 후손이 아니라 연등불의 이래의 부처(Buddha)의 후손이라고 하였다. 예수와 석가는 다 같이 짜기라도 한듯 몸의 아버이를 참 아버지로 인정하기를 거부하였다. 이것은 몸의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다석 류영모는 말하기를 「효도의 실상은 하느님에게 효도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하느님에게 최선의 효를 할 수 있다. 하느님에 대한 정이 결국 땅의 부모님에 대한 정성이 되고 만다. 이 근본 이치를 몰라서 오늘날 설음을 받는 아버지들이 많다.(다석 류영모어록)」 하느님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이 없다. 천명(天命)을 중히 알던 유교가 천명은 잊어버리고 땅의 부모에 대한

깨달을 때 하느님을 아버지로 실감하게 된다. 참 아버지를 깨닫는 것과 참나를 깨닫는 것은 함께 이루어진다.

예수가 늘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제자 빌립이 우리에게도 하느님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 대답하기를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요한 14:9)고 하였다. 여기에 「나를 본자」라는 나느는 예수의 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참나인 열의 나를 깨달았으면 열이신 아버지를 깨달았을 터인데 새삼스럽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한 것이다. 이때 빌립은 몸의 나에서 열의 나로 거듭나지 못하였으니 하느님아버지에 대하여 잠잠할 수 밖에 없었다. 열의 나로 거듭났다면 이 우주의 물질세계는 안개처럼 사라지고 하느님아버지만이 계시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참 사람은 하느님아버지를 깨달은 체험을 이렇게 말한다. 「진리 되시는 하느님은 아는 것이 아니다. 꿰뚫어 보아야(直觀) 한다. 이 때 우리는 하느님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하느님아버지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것이다. 그것은 나의 열(熱)이 아버지의 열을 보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음이라 한다. 열의 나인 하느님 아들은 자아(自我)의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다. 자아의 죽음과 참나의 깨달음은 같은 말이다.(다석 류영모어록)」

사람들이 하늘의 태양보다 더 밝게 뚜렷이 계시는 하느님을 모르는 것은 거짓 나(自我: ego)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 내(ego)가 죽어야 한다. 말하자면 정신적인 자살을 해야 참나인 도(道)를 깨닫게 된다. 정신적인 자살이란 육체생명을 버리는 것이다. 육체생명을 버리는 것은 모든 탐욕을 버리는 것이다. ‘기분 좋다’ ‘불쾌하다’ ‘무시 당하였다’ ‘내가 제일이지’ ‘재수 좋다’ ‘재수 없다’고 하고 있는 이 나를 한번 죽여보라. 내가 나라는 의식을 죽이는 것은 사회적인 통념의 살인도 자살도 아니다. 자

의식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시원하고 자유 롭고 기쁠 수가 없다. 그 때 참나인 성령이 내 마음 속에 입성 진주한다. 이것이 성불(成佛)함이다. 이런 체험을 하기전에는 사람 후보생이지 사람이 아니다. 사람 후보생이란 짐승이다. 탐진치(貪瞋痴)의 삼독(三毒)의 노예인 짐승이다. 제양녀를 성적으로 폭행하고, 돈 안준다고 제 어머니를 살해하는 놈들이 특별히 더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삼독(三毒)인 짐승의 본성에서 풀려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삼독(三毒)인 수심(獸心)에서 해탈하지 못하면 정도의 차는 있어도 모두가 그런 악의 요소 속에 지니고 있다. 참나를 깨닫는 것이 대단히 놀라운 정신적인 고등유희로 알아서는 안된다. 짐승에서 사람이 되는 일이다.

옛 이야기에 범이 사람을 잡아 먹는데 범의 눈에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면 잡아먹지 않고 범의 눈에 사람이라도 짐승으로 보이면 잡아먹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범의 눈썹 한개를 뽑아서 눈에 대고 사람들을 보니 사람들이 짐승으로 보이더라는 것이다. 범의 눈썹은 거짓이고 참 사람의 사상이라는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면 사람인지 짐승인지 있는 그대로 비춰 보여줄 것이다. 내가 몸 사람으로만 살 때 범같이 죽음이 나를 잡아먹는다. 영원한 열 생명을 죽음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말하기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요한 18:37)」예수가 말한 진리란 요즘의 소위 과학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그런 공부나 연구를 한 적도 없다. 예수의 진리란 유일절대(唯一絶对)인 하느님아버지를 말한다. 예수의 인생목적은 하느님 아버지를 깨닫고 또 알리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것이 사람의 절대적인 참 목적이다. 예수 혼자만의 목적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다. 이 목적을 이룰 때 상대적인 가목적도 뜻을 지닌다.

효도만 강조하다가 참 효자의 씨가 마르게 된 우리가 아닌가. 효도를 하더라도 참 아버지에게 먼저 하는 것이 순리다. 생명의 실권자인 참 아버지(하느님)께서 스스로의 정체를 숨기고자 땅의 남녀를 혼인케 하여 대용한 것이다. 그런데 어질고 슬기로운 예수 석가에게는 그만 참 아버지께서 들키고 말았다. 그래서 예수는 생명의 실권자는 하느님 아버지라고 밝혔고 석가는 니르바나(열반)라고 밝혔다. 이름만 다르지 실체는 하나다. 절대존재이다. 참 아버지(하느님)께서는 아들과 숨바꼭질 하기를 즐기시는 것 같다. 그런데 숨기 위하여 숨은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찾기기 위하여 숨으신 것 같다. 아버지는 아들이 숨은 아버지를 찾을 때 가장 기뻐하신다. 예수 석가가 아버지를 찾았을 때 가장 기뻐하신 것이다. 그런데 예수 석가와 같이 하느님 아버지를 바로 알아 맞추는 사람이 드물다. 이것이 인류역사의 불행이요 비극이다. 참 아버지인 하느님을 찾는 것이 모든 인간의 선천적이고 절대적인 기본 목적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예수는 석가처럼 참 아버지인 하느님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의 절대목적에 대하여는 까막눈이 되어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엉뚱한 상대적인 가목적(街目的)을 세워서 출세니 성공이니 기쁨이니 영광이니 하면서 쇠파리에 쏘인 아프리카의 영양처럼 제 자리를 뱅뱅 돌면서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참 사람은 안타까워하기를 「사람들은 거의 쓸데 없는 일에 정신을 다 소모한다. 참으로 쓸데 있는 일에는 거의 정신을 쓰지 않는다. 시간도 재력도 마찬가지다. 사람의 무엇이 참으로 쓸데 있는 일인가를 아는 것이 진리파지(사차크라하)요 덕성(德性)이다. 이를 것을 이루고 가질 것을 가지는 것이 진리파지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정이라는 것을 이루어 살림을 하지만 세상을 살고난 뒤에 보면 빈껍데기 살림을 가지고 실생활로 여기고 살은 것이다. 물질생활이란 변화하여 지내가는 것 뿐이다.

그리하여 예수 석가는 가정에 갇혀서 살지 않고 참 아버지인 하느님의 품속인 무한과 영원 속에서 살았다(다석 류영모어록)

예수 석가는 상대적인 가목적에서 살지 않고 절대적인 진목적에서 살았다는 말이다. 허무한 육체 생활에만 매어달리지 않고 영원한 정신생활을 하였다는 것이다. 내가 가장 잘 사는 것이라 땡땡거리면서 호화 사치 쾌락 방탕으로 지낸 왕후장상들의 삶은 물거품이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지만 삶의 절대목적에 충실한 삶을 보낸 예수 석가의 삶은 해와 달이 되어 지금도 우리를 비추어 주고 있다.

석가는 육체적인 물질생활에만 골몰하고 있는 중생의 삶을 큰 불이 난 화택(火宅) 속에서도 뿔이 난 줄도 모르는채 장난치기에 빠져있는 어린이들에 비유하였다.(법화경 비유품) 석가는 인생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전도몽상(顛倒夢想, 반야심경)이라고 하였다.

학위 받기보다 먼저, 자격 따기보다 먼저, 승진하기보다 먼저, 혼인하기보다 먼저, 부자되기보다 먼저 유명해지기보다 먼저 인생의 절대목적인 내 생명의 실권자가 누구이며 나의 진면목(眞面目)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

내 생명의 실권자인 참 아버지(하느님)를 알아야 나의 진면목인 참나(眞我)를 깨닫게 된다. 아버지를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 가부모(假父母)인 땅의 아버지는 가생명(假生命)인 몸 밖에 줄 수 없다. 엄격하게 따지면 몸 조차도 아버지의 것이 아니다. 참 아버지인 하느님은 참 생명인 열(靈)을 준다. 그리하여 예수 석가는 썩어질 몸나(肉身)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활 열나(靈我·法身)를 위하여 살라고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참나인 열의 나(靈性·法身)를 깨달아야 한다. 몸에서 열로 솟아나(生)한다. 이 열의 나가 하느님의 아들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요 부처다. 이 열의 나를